

중·러 군사협력 강화...불안한 미국

“미국의 압박이 중·러 결함시커” 경제협력에 잇단 합동군사훈련 푸틴-시진핑, 30차례 이상 회동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경제적, 군사적 협력 강화에 나서자 미국이 국제협력 관계에 가지를 변화할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경제협력과 공동 군사훈련, 무기 개발 등의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군대는 작년 여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들은 전투기와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워낙 정보 관리에 철저해 어느 정도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지 외부에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서방의 당국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그들이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도 두 나라가 자국에 대한 공동

위협이 될 가능성에 오랫동안 회의적이었지만, 최근엔 일각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미국 가정보국(DNI)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60년 이래 가장 가까운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4000km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으로 완전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미국이 두 나라의 영향력을 억누르려는 여러 조치를 내놓으면서 경쟁 관계였던 양국이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정보를 모으며 결함하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해길 원하고 있으며, 이에 손을 맞잡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작년 6월 “양국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면서 깊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그들의 관계가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붕괴에 맞서 고전하고 있던 작년 8월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북서부 닝샤에

서 1만3000명의 병력과 전투기 등 첨단 무기가 투입된 공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는 양국이 처음으로 공동 지휘 체계를 갖추고 진행한 훈련이었다.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소 주 펑 교수는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레버리지 중 하나”라며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는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푸틴은 제재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파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중국도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수사와 오커스 동맹 결성 등 계기로 미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공식화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푸틴은 제재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파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중국도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수사와 오커스 동맹 결성 등 계기로 미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공식화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작년 10월 “우리가 워싱턴 정계에 대해 싫어하는 것이 있어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상호존중의 식이 부족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을 싫어하지만 불안감은 좋아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닮았다”라고 말했다.



남아공 투투 대주교 장례식 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세인트조지 성공회 대성당에서 고(故) 데즈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사제들이 고인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아프리카테이트(인종차별정책) 반대 운동으로 198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투투 대주교는 지난달 26일 90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러시아, 우크라 침공시 단호대응”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젤렌스키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단호한 대응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가혹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등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푸틴 대통령도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뤄지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양국 정상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

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와, 지난 2014년 체결된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을 촉진하려는 적극적인 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에 우크라이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의 원칙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악화하고, 러시아와 서방간 긴장이 높아지자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만나 협상에 착수해 이 지역에서의 평화협정 방안을 담은 민스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이날 통화에서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간 양자 전략 안정화 대화를 시작으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13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러시아의 연례 협상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화에서 절전을 벌이면서도 이런 내용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수직상승으로 새해 시작 미국·유럽, 오미크론발 대유행

지구촌이 코로나19의 대유행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만35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기록된 역대 최대 189만2719명보다 적지만 작년 말에 시작된 하루 100만명대 확산 추세를 지속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미국, 유럽에서는 특히 감염자 증가세가 수직상승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새 보건의학에 직면해 비상 대책을 점검하고 새 추세에 맞는 맞춤형 방역체계를 제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전 주보다 2배 늘어난 39만6490명이었다. 인구가 밀집한 동부, 서부 대도시에서는 매일 수만 명 단위로 감염자가 쏟아져 연일 최다를 기록했다. 연말연시 연휴에 급증한 여행과 모임, 행정서비스 공백을 고려하면 감염 실태가 공식 기록에 적게 반영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신규 환자가 수직으로 늘고 있다”며 현상향을 전혀 없는 사태로 진단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유럽의 지난 1일 신규 확진자는 73만9684명으로 2020년 초 팬데믹 시작 후 최다행진을 이어갔다. 프랑스가 21만9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16만1692명), 이탈리아(14만1353명) 등이 그 다음이었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러시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도 하루 감염자가 수만명씩 쏟아졌다. /연합뉴스



중국 시안 코로나 봉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도시 전역이 봉쇄된 중국 북서부 산시성 시안에서 2일 주민들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검사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도시 봉쇄에 들어간 시안은 열하루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서 코로나+독감 ‘플루로나’ 첫 확인

동시 유행 ‘트윈데믹’ 우려 커져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가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됐다고 이스라엘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성은 가벼운 증상으로 페타 티코바에 있는 베일린스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두 개에 동시에 감염된 ‘플루로나’는 이번이 세계 첫 사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해 초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0 명이 가까운 이들이 입원하면서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의 ‘트윈데믹’ (두 가지 감염병의 동시 유행)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스라엘타임스는 트윈데믹이란 용어는 두 개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에서 넘쳐날 수 있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두 개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연합뉴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대선...“예측 불가”

마크롱 재선 도전 아직 안 밝혀

프랑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엘리제궁에 누가 들어갈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코로나19 기증 밀다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대선에 불확실성을 가미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4월 10일 대선 1차 투표를 하고 득표율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4월 24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일간 르몽드는 “시나리오가 이처럼 불확실했던 적이 없다”고 평가했고, 일간 르파리저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대선”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 도전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고, 일부 진영에서는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실정이다.

우선 극우 진영에서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와 에리크 제무르 르콩케트(Reconquete) 후보가 나와 표심이 갈라졌다. 좌파 진영에서는 사회당(PS)이 안 이달고 파리시장을 후보로 확정 한 이후 프랑수아 울랑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크리스티안 토비라가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세력이 복잡해졌다.

사회당이 배출한 마지막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토비라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좌파 진영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올해 1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